

# 연중 제19주일 복음나눔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마태 14,33)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성경을 읽기 전에>

●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소리 내어 바칩니다.

## 5. 독서 (성경읽기 I) - 마태 14,22-33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 성경해설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는 중입니다(22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로 이동 중이고, 날은 어두워지고, 맞바람까지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면을 밟고 있을 때보다, 물 위에 있을 때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기 쉬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수(200주년 성서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란 이집트 탈출을 감행했던 홍해를 떠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죽음, 혹은 두려움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하며 소리를 질러댁니다(25-26).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의 한 가운데에 나타나셨을 때입니다(루카 24,36-49).

두려움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것인지,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알았을 때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너라.(29절)”는 예수님의 초대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자 곧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나, 두려움은 기적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 복음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마르 6,52에서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 빵의 기적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들이 오늘 고백한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33절).”란 고백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전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친 파도를 만난 배 안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 있을 때, 내게 어찌면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분께 향할 수 있다면 차라리 흔들리는 배를 떠나 내게 시련을 주었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 묵상나누기

-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위안을 얻은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 8. 안건토의

### 9. 기타토의(공지사항)

###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